

아세안 헬스케어 산업 환경

안지영 연구원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 아세안 헬스케어 산업 특징

1) 아세안 국가들의 헬스케어 지출 현황

- 2015년 기준, 아세안의 경제 규모는 GDP 총합 2조 9,743억 달러로 미국(19조 달러), EU(17조 달러), 중국(12조 달러), 일본(4.9조 달러), 독일(3.7조 달러)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임
- 아세안 지역의 총 의료비 지출은 2015년 기준 975억 달러로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얀마는 2000년도에서 2015년도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연평균 24% 성장했으며, 인도네시아는 33억 달러에서 296억 달러까지 연평균 17% 성장세를 보임¹⁾

1)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의료비 지출 증가율을 보임

[표 1] 아세안 국가별 의료비 지출

(단위: 백만 달러, World Bank)

국가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인도네시아	3,309	7,886	26,069	29,557	16.9
미얀마	154	252	769	3,098	23.9
태국	3,920	5,982	11,564	15,067	10.1
브루나이	169	236	312	339	5.1
캄보디아	235	444	779	1,097	11.6
라오스	77	131	218	353	11.5
말레이시아	2,603	4,239	8,271	11,574	11.2
필리핀	2,556	4,020	8,608	12,907	12.3
싱가포르	3,212	3,877	7,627	12,622	10.3
베트남	1,474	2,870	6,787	10,923	15.4
총합계	17,710	29,938	71,005	97,539	13.0

출처: WorldBank

- 아세안 평균 GDP 대비 의료비는 2015년 4.18%로 OECD 평균 보다 5.92% 낮고 한국 보다 약 6.02%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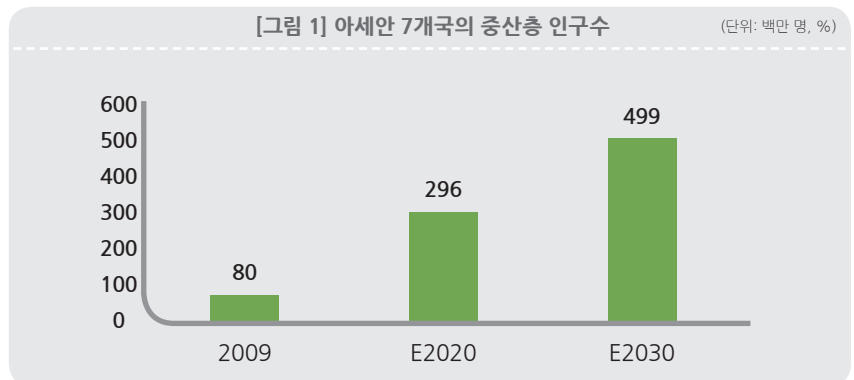
[표 2] 아세안 국가별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단위: %)

국가	2005년	2010년	2015년
인도네시아	2.76	3.45	3.43
미얀마	1.83	1.86	4.95
태국	3.39	3.63	3.81
브루나이	2.23	2.28	2.62
캄보디아	7.05	6.93	6.08
라오스	4.84	3.19	2.81
말레이시아	2.86	3.24	3.91
필리핀	3.90	4.31	4.41
싱가포르	3.04	3.23	4.25
베트남	4.98	5.85	5.56
아세안 평균	3.68	3.79	4.18
한국	6.1	7.9	10.2
OECD 평균	8.9	9.3	10.1

출처: World Bank & 한겨레

2) 소비층의 증가

- 아세안 국가의 경우 중산층 확대에 따른 가계구매력의 증가로 내수시장이 확대됨(HSBC, 2017)
 - OECD에 따르면 2009년도에는 아세안 7개국²⁾의 중산층 인구수가 8천 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2030년도에는 4억 9천 9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출처: OECD

2)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는 제외됨)

3) 의료인의 부족

-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평균 0.57 명으로 OECD 평균(3.3명)과 비교하였을 때 의사 수가 부족함

[표 3] 아세안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단위: 명)

항목	OECD 평균	한국	싱가포르 (아세안 최대값)	캄보디아 (아세안 최소값)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3.3명	2.3명	2.28명	0.14명

출처: OECD 보건통계 (2018)

국내기업의 진출방안

-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의료 ICT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아세안의 의료 IT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병원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IT인프라, 국민 의료보험 체계, 고급 전문 인력,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 등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 국내 대형병원은 협력을 통해 IT 의료 혁신을 창출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은 자체 개발한 병원정보시스템을 사우디, 미국, 레바논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함

[표 4] 국내 기업 협력 의료혁신 사례

구분	주요내용
분당서울대병원	국내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인 마크로젠과 의료혁신을 위한 의료 및 유전체 정보 기반 정밀 의료 공동연구 진행
삼성서울병원	삼성SDS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도구를 적용한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
서울아산병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의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술을 개발

출처: 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2013년부터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의약품 수출하고 있음
 -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빠르고 소비층의 빠른 증가가 예상되므로 의약품을 비롯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진출이 기대됨

[표 5] 한국의 對아세안 의약품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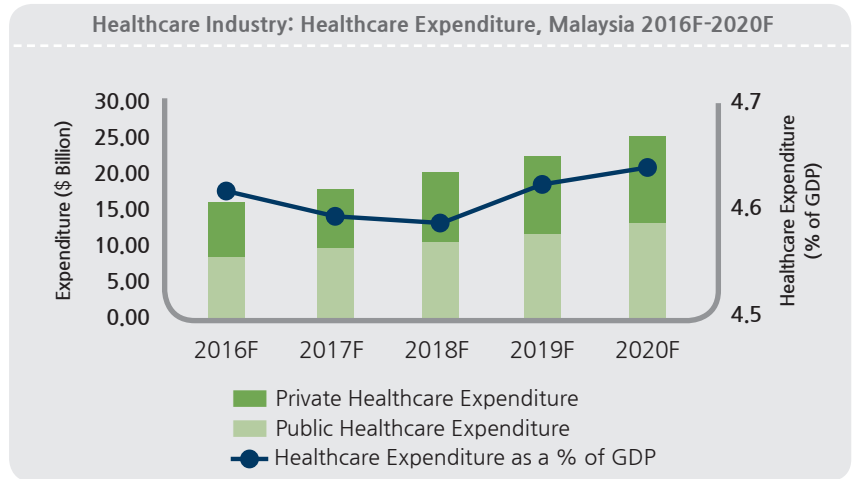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1~8 누계	비중 (2016.8 기준)
아세안	217	223	239	156	100
베트남	45	50	56	43	27.5
싱가포르	54	52	52	32	20.3
태국	35	34	37	24	15.5
필리핀	15	19	23	19	12.4
인도네시아	29	24	31	14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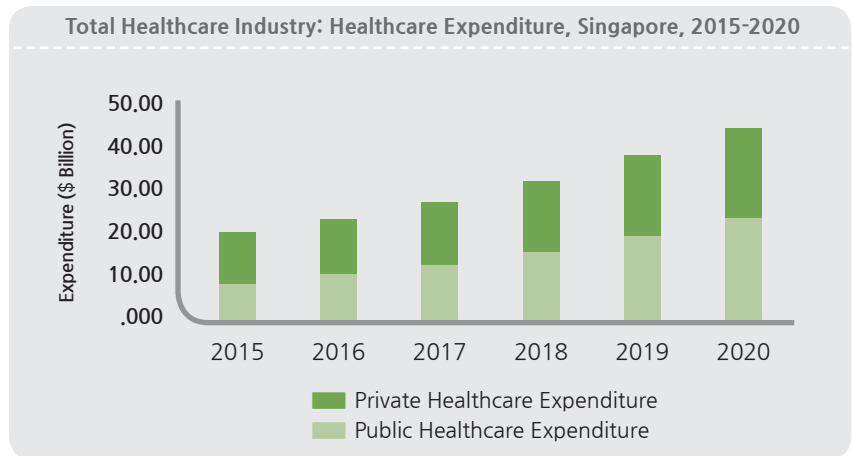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참고자료> 아세안(ASEAN) 헬스케어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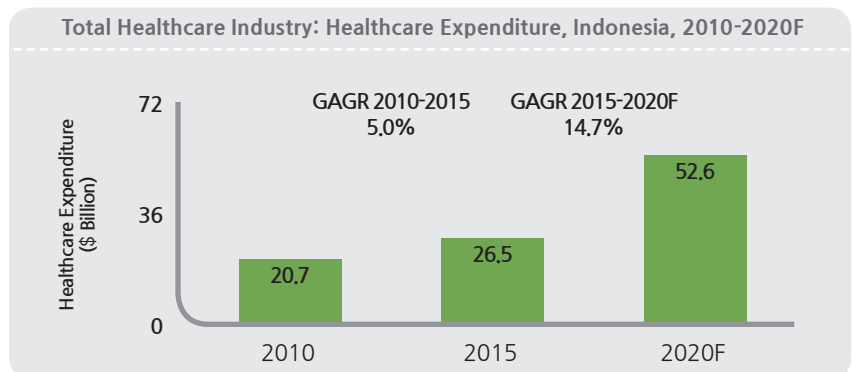
① 말레이시아(Malaysia)



② 싱가포르(Singapore)



③ 인도네시아(Indonesia)



< 참고문헌 >

1. Frost & Sullivan, (2017). Malaysia, Singapore, and Indonesia Transformational Health Insights, 2017-2022.
2. Frost & Sullivan, (2018) Healthcare Innovations in Emerging Economies.
3. Solidiance, (2018) The ~320 USD 320 billion healthcare challenge in ASEAN.
4. 김희진, (2017). 2018년 ASEAN 주요국 경제 전망. 국제금융센터.
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바이오협회 (2018). 한-아세안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경제협력 방안.
6. 삼성경제연구소, (2017). 2017 글로벌 정치지형 변화와 경제.

저자소개

안지영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연구원
 전화 : 031-628-0027
 e-mail : frida@koreabio.org

BIO ECONOMY BRIEF

발행 | 2018년 11월
발행인 | 유승준
발행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www.koreabio.or.kr